



▲ 회화 '당신을 위해 왔노라': 세인에게 진상 정기 간행물을 선물하는 파룬궁 제자를 묘사한 그림. 작자: 청풍(淸風)

줄마다 자비심 깃들어 있고 구구절절 진심이라네
자세히 보기 바라오니 종이에 다른 경지가 있어라

봉쇄들과 소프트웨어 받는 방법

[PC 버전]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VPN] <https://j.mp/fgv88>

안내: 중국산 브라우저에서는 이 주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어 Edge, Chrome,
애플 Safari 등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

하늘이 내린 큰 복 天賜洪福

明慧期刊 제 139기



명혜 정기간행물 | MINGHUI.ORG | 격월간



▲ 공필화 '하늘에서 풍겨오는 향기'. 작가: 여의(如意)

목차

CONTENTS

- | | | |
|------------------|----|--|
| 권두일문 | 1 | 두 가족 이야기 |
| 독후감 | 2 | 신경문을 읽은 동료들이 모두 좋다고 했다 |
| | 4 | “사람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깊은 뜻” |
| 길성고조
(吉星高照) | 6 | 세 차례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다 |
| | 7 | 이웃의 자궁암이 완쾌되다 |
| 절체절명에서
살아나다 | 8 | 폐가 하얗게 되어 죽어가던 둘째 남동생 기적같이 살아나다 |
| | 10 | 암세포가 없어져 깜짝 놀란 의사들 |
|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다 | 12 | 스타 헤어디자이너의 독특하고 기이한 경험 |
| | 18 | 스위스 의원들 파룬궁 성원,
세계는 진선인(真善忍)이 매우 필요하다 |
| 평안을 얻는 길 | 20 | 나의 체험: 사람은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 |
| | 22 | 실화: 탈퇴하면 살고 탈퇴하지 않으면 위험 |
| 아는 것이 복 | 26 | 자손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가? |
| 항간여론 | 28 | 500도 고온에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 |

‘분신자살’ 가짜뉴스 최고수들의 결말

뤄징(罗京), 전 CCTV 중심인물이자 텐안먼 ‘분신자살’ 가짜뉴스 메인 아나운서이다. 2008년 7월, 뤼징은 림프암 진단을 받았고 구강 궤양 등 합병증이 생겼는데 허가 혈고 통증이 심했다. 어떤 사람은 뤼징이 입심을 뱉으며 거짓말을 퍼뜨려 큰 업을 저질렀다고 한다. 하늘은 그에게 입과 허가 허는 벌을 내렸다. 2009년 6월 5일, 4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 뤼징(罗京)

천명(陈虻), 전 CCTV의 ‘동방 시공’ 칼럼의 책임자이자 텐안먼 ‘분신자살’ 가짜 사건의 제작자이다. 2008년 초 위암과 간암에 걸린 천명은 9개월간의 고통 끝에 구조 포기를 요구했다. 2008년 12월, 47세의 천명은 베이징 종양 병원에서 사망했다.



▲ 천명(陈虻)

팡징(方静), 전 CCTV ‘동방 시공’, ‘초점 방탄’ 및 기타 프로그램의 진행자이다. 텐안먼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2005년 1월 23일, ‘초점방담’에서 팡징은 ‘텐안먼 분신자살’ 사기극을 계속 방송하면서 허난성에 가서 이른바 ‘추적 취재’를 했다고 주장했고, 또 한 번 사실을 왜곡하고 파룬궁을 모욕하며 계속해서 대중을 속이고 증오를 선동했다. 2015년 11월, 팡징은 44세의 나이에 위암으로 사망했다.



▲ 팡징(方静)

리둥성(李东生), 전 CCTV 부국장,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610 판공실 주임, 공안부 부부장이다. 리둥성은 텐안먼 ‘분신자살’ 사건의 언론 기획자로 2013년 말에 조사받고 2016년 1월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리둥성(李东生)

이는 참으로 “선악에 결국 응보가 따르고, 천도는 윤회하기 마련이다. 믿기지 않으면 고개를 들고 보라, 하늘이 누구를 용서했는가.”라는 중국의 그 옛말에 응하는 것이다. 福

500도 고온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

글/루진(如君)

2001년 1월 23일 선달그믐날, 텐안먼 광장에 ‘분신자살’의 불길이 솟았는데 중공은 파룬궁 수련생의 소행이라고 속였다. 그러나 CCTV ‘초점방담(焦点访谈)’에서 방송한 ‘분신자살’ 녹화는 허점투성이다. 사실 많은 허점은 상식적으로 간파할 수 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은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 500도가 넘는다는 것을 안다. 500도 고온의 휘발유 불은 말할 것도 없고, 100도의 끓는 물에 손을 넣어도 ‘꼼짝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왕진동(王进东)은 전신 화상인데도 미동도 없이 앉아 있는 모습이다. 누가 믿겠는가?

어떤 관중은 요리할 때 뜨거운 기름이 팔에 튀어서 펄쩍펄쩍 뛰었다고 말했다. 만약 ‘분신자살’이 사실이라면, 왕진동은 일찍이 텐안먼 광장에서 날뛰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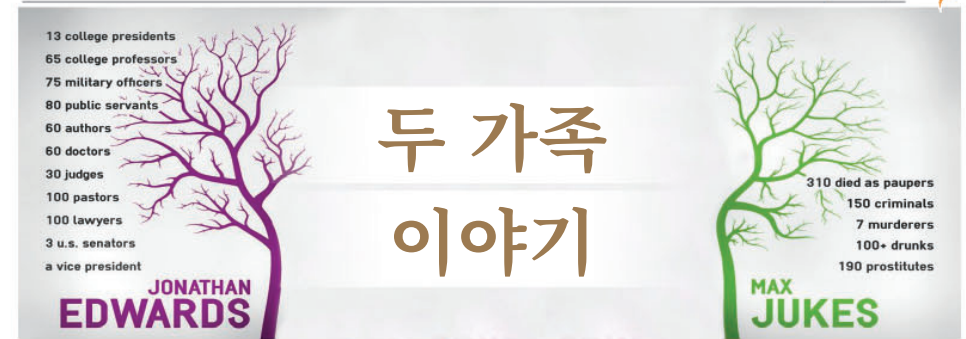


▲ TV 전문가는 CCTV가 방영한 ‘분신자살’ 비디오를 보자마자 이것이 촬영인지 연기인지 알 수 있다.

을 것이다. 꺼져라! 영화 촬영하듯 백성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다!

‘분신자살’자 왕진동의 옷은 큰불에 ‘타’버렸지만, 다리 사이에 있는 휘발유 담긴 사이드 페트병은 새것처럼 퍼렇고 가장 잘 타는 머리카락도 손상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에 불을 붙이면 5초 사이에 병이 물렁해지기 시작해 7초면 수축 변형되며 10초면 작은 덩어리로 축소되는 실험을 했다. 설마 왕진동의 두 다리 사이에 있는 페트병이 특수 재료로 만든 것인가?

‘분신자살’은 돌발 사건인데 CCTV 기자는 화면을 안정적이고 선명하게 찍었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사건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면서 먼 거리 화면, 가까운 거리 화면, 클로즈업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미국의 저명한 교육자이며 교육 전문 기자인 윈십(A. E. Winship) 박사는 17세기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0년 동안의 두 가족의 발전 현황을 추적 조사했다. 한 가족은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가족이고, 다른 한 가족은 무신론자인 맥스 쥬크스(Max Jukes) 가족이다.

윈십 박사가 발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가계 인원은 총 1,394명이다. 그중 대학교수가 100명, 대학총장 14명, 변호사 70명, 판사 30명, 의사 60명, 작가 60명, 목사 300명, 의원 3명, 부통령이 1명이다.

맥스 쥬크스 가문의 가계 인원은 총 903명이다. 그 중에는 깡패 310명, 성병 환자 440명, 13년 이상 수감자 130명, 살인자 7명, 알콜 중독자 100명, 절도범 60명, 접대부 190명, 상인 20명(10명은 감옥에서 사업 수완 습득) 등으로 집계됐다.

무엇이 이 두 가문 자손들의 운명을 이토록 판이하게 했을까? 먼저 그들의 가계주를 살펴보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정해놓고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아낌없이 선행을 하면서 누구를 험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비이성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탓하거나 보복하지 않았다. 늘 절제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했다.

반면 무신론자인 맥스 쥬크스는 늘 술과 함께 향락을 추구하는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는 일찍이 에드워즈에게 “당신은 신을 믿지만, 나는 영원히 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착실한 신앙심으로 도덕 규범을 지키는 에드워즈 가문은 사회의 엘리트층을 많이 배출했고, 신을 믿지 않고, 도덕적 구속력이 없었던 쥬크스 가문은 불량배와 범죄자를 많이 배출했다. 이 연구 조사 결과는 불가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떠올리게 하지 않는가. 福

파룬궁 창시인 리홍쯔 선생님 발표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

▲ 리홍쯔(李洪志) 선생께서 발표하신 이 두 편의 글은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회람되고 있다. 구구절절 문장이 모든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보았다면 누구나 복을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소중히 여기기 바란다.

신경문을 읽은 동료들이 모두 좋다고 했다

[허베이 투고] 2023년 2월 중순 어느 날 오후, 나는 찬바람을 맞으며 40분 넘게 자전거를 타고 전 직장의 한 매장에 자료를 전하러 갔다. 한 직원이 나를 보자, “당신은 정말 우리의 큰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이 오자, 이 썰렁한 가게에 손님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라고 말했다. 3명의 직원 모두가 손님 접대에 바쁜 것을 보고 나는 한쪽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A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다. “할머니, 이렇게 추운 날 오셨는데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시죠?” “물론이죠, 당신들에게 큰 복을 주러 왔어요. 대법 사부님께서 새해에 경문,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발표하셨는데, 이는 처음 전 세계 중생들에게 설법하신 겁니다. 구구절절 모두 천기(天机)이므로 누가 얻을 수 있다면 정말 큰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나는 당신들의 파룬궁 자료를 즐겨 봅니다. 빨리 보여주세요.”라고 재촉했다.

이때 B, C 직원도 다가왔다. B는 “당신이 보내준 자료는 다 본 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친지들에게 보여줘

유산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 나중에 양진의 장남은 관직이 부파상에 이르렀고, 둘째 아들은 태위에 올랐으며, 막내 아들은 학문에 힘쓰고 견문이 넓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수서(隨書)’에는 수나라 때 감찰어사를 지낸 방언겸(房彦謙)이 청렴결백해 전국 관원 평가에서 천하제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방언겸은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집안 형편이 넉넉했지만 재물을 담담히 보고 가산과 봉록을 모두 친척과 친구를 구제하는 데 썼으며, 집안에 여분의 재산이 없어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방언겸은 아들에게 “사람들은 모두 관봉으로 부유해진 것인데 나만 관직에 올랐으면서도 가난하구나. 내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청렴결백뿐이다.”라고 했다. 훗날 그의 외아들 방현령(房玄齡)은 당나라 개국 공신이자 명재상이 되어 양국공에 봉해졌다.


덕 쌓으면 자손에게 복 줄 수 있어

송나라의 명재상 사마광은 ‘가범(家範)’에서 말했다. “조상 대대로 후대에 복을 바라지 않는 선조는 없겠지만, 정말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 사람은 단지 돈을 많이 모아 후손에게 주는 것만 알고 이렇게 하면 후

손들이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손에게 남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치를 교육할 줄 모르기에 결국 그들이 수십 년간 고생하여 축적한 재산을 자손들이 몇 년 안에 탕진하고 만다. 자손들은 또 조상은 누릴 줄 몰랐다면 비웃는다.”

사마광은 또 말했다. “고대에 성인은 자손에게 덕과 예를, 현인은 청렴과 검소함을 물려줬다. 예를 들면 주나라 선조 후직, 공유, 태왕 왕계, 문왕이 백성을 행복하게 하여 공덕을 쌓았기에 조상의 보살핌으로 후손인 주무왕이 천하를 얻게 됐다. 즉, 부는 몸 밖에 있고, 왔다가도 떠나는 것이지만 덕(德), 예(禮), 옴(廉), 검(儉)은 몸에 지니고 있어 사람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며, 조상이 쌓은 덕은 자손에게 복을 줄 수 있다.

현 사회에는 자녀들의 유산 다툼, 친척 간 법정 다툼이 자주 있다. 다른 고관들은 한손으로 횡령하고 한손으로 특권을 이용해 자녀들을 위해 부당 이익을 취하다가 응보를 받았다. 지혜가 부족해 무엇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게 진정 그들을 위한 건지 모른 것이다.

고대 성현들의 경험과 지혜에 따르면, 검소함과 청렴함 등 미덕으로 선한 일을 해 자손을 위해 덕을 쌓는 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자손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가?

글/ 기혜(起慧)



예부터 조상들은 인생의 길에서 자손들의 굴곡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더 순조롭도록 무언가를 남겨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자손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좋은 것일까? 아래는 몇몇 역사 명인들의 견해다.

자손에게 검소함을 남겨 부족함이 없게 하다

‘한서(漢書)’에 따르면, 한나라 제일 개국 공신인 소하(蕭何)는 근검절약하고 계획이 주도면밀하며 생각이 원대했다. 유방이 진나라 도성을 침략했을 때 장병들은 금은보화를 빼앗기 바빴지만, 소하만이 서둘러 진나라의 지리도감, 문서, 호적 등 기록물들을 챙겼다. 그 후 이런 기록물들은 천하의 산천 요새, 호구, 물자 분포를 파악할 때 보탬이 돼 유방의 천하 통일에 큰 역할을 했다.

소하가 자손을 위해 계획하는 것 역시 주도면밀하고 생각이 원대했다. 그는 밭과 집을 살 때면 황량하고 외진 곳을

택했고, 집에서도 가옥을 짓는 일이 드물었다. 소하는 “만약 내 후손들이 현명하다면, 내 검소한 기풍을 본받아 평생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네. 내가 후손들을 위해 산 토지는 보잘것없어도 권력자들의 강탈도 없을 것이네.”라고 했다. 소하의 사후 두 아들은 모두 제후로 봉해져 평생 걱정 없이 살았다.

자손에게 청렴결백을 남겨 존경받을 수 있게 하다

‘후한서(後漢書)’에는 동한의 유명한 신하 양진(楊震)이 태위라는 관직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다. 양진은 탁군 태수 직책을 맡았고, 공정하고 청렴하며 사사로운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평소 집에서 검소하게 지내고 마차를 타지 않으며 검소하게 생활했다.

양진의 옛 친구들과 어르신들이 재산을 더 모아 자손에게 물려줄 것을 제안하자 양진은 “후손에게는 청렴한 관리의 자손으로 불리게 하는 것이 최고의

요. 그들도 진상을 분명히 알고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가져온 사부님의 신경문은 꼭 친지들에게도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하는 이 자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걸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큰 복을 쌓는 것입니다!”라고 말해주었다. 그들은 모두 기쁜 듯이 그러겠다고 했다.

C는 “당신이 3년 전에 준 소책자를 집에 가서 열심히 읽었는데, 나는 아직 삼퇴(중공의 3대 조직 공산당, 공청단, 소선타 탈퇴)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탈퇴를 도와주세요.”라고 했다. 나는 “알았어요. 나중에 친지들도 도움이 필요하면 나에게 전화하세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매장에 가서 점장에게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의 글을 전해 주며 집에 가서 잘 보라고 하자, 그녀도 흔쾌히 받았다. 2주일 후 또 그곳에 가서 점장이 말했다. “당신이 준 사부님의 경문을 읽고 참 좋았어요. 남편, 시부모 등 온 가족이 읽고 다 좋다고 했어요.”

며칠 후, 나와 같은 직장에서 과장으로 있다가 은퇴한 93세 고령자를 찾아갔다. 그는 성품이 좋은 노인이라 이미 아내와 함께 파룬궁의 진상을 듣고 삼퇴한 사람이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파룬따파(法輪大法) 만세!”라고 외쳤다. 지난해 말 봉쇄가 해제된 뒤 전염병

이 창궐하면서 그도 감염되어 인맥을 동원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가 심각해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의 9자 진언을 잊지 않고 염해 생사 고비를 넘겼다고 했다. 노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 6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그들은 모두 자기보다 나이가 많지 않았으며, 자기는 신의 가호로 살아났다면 정말 신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당신은 정말 큰 복을 받았어요! 오늘 제가 대법 사부님께서 새로 발표하신 경문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가져왔어요. 매우 귀중하니 잘 보시고 가족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라고 하자, 그는 “어김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다짐하듯 말했다.

전 직장의 한 노 직원은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의 경문을 읽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이번에 우리 모두는 신이 만든 것임을 알았다. 원숭이가 진화한 것이 아니다. 공산당이 선전한 무신론으로 많은 사람이 신을 공경하지 않게 되고, 선악에는 응보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되었다. 지금 이 사회는 얼마나 어지러운가. 그것들이 우리 중국을 어지럽히고, 우리 중국인을 괴롭히고 있다!”

“사람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깊은 뜻”



리홍쯔(李洪志) 선생의 글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가 서양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신이 이 지구를 도와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산관리자인 쿨만(Kuhlmann)은 이 글에 “깊은 뜻”이 있다며, 신이 이 지구가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엄격한 종교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난 쿨만은 17세까지 대부분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다. 어른이 된 후 도교, 불교 등을 연구했다. 쿨만은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가 세계, 인류와 우리의 기원에 관한 “매우 심오한 정신적 문제를 탐구했다.”라고 보았다. 62세의 쿨만은 한 사람의 선택에 결과가 있다는 리 선생의 말을 믿는다며, 또한 이 글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와 생명 윤회의 개념을 믿는다고 전했다.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것을 알고 있는 쿨만은 파룬궁 수련생들의 확고한 신념에 감탄했다. 그는 “최악의 순간은 인간이 각성하는 순간이기도 하다”라며 “신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른 힘이 이 지구가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글에서 밝힌 우주의 법칙에 매우 공감한다”

호주 전통 가족 지킴이 연맹 대표인 폴 폴리(Paul Folley)는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읽고 느낀 첫 번째 소감이



▲ 2021년 4월 18일, 파룬궁 수련생들이 뉴욕 플러싱에서 대규모 퍼레이드를 개최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있다.

탈당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중국은 중공이 아니고, 애국은 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히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중국은 5천 년의 빛나는 역사와 문명을 가진 나라이고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한 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중국과 혼동할 수 있겠는가.

국가와 정당, 정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애국은 정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당을 사랑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예를 들어, 손중산(孫中山)은 나라

를 사랑하지만, 그는 부패한 청나라를 좋아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중국은 20여 개의 왕조를 거쳤는데, 어느 조 대가 몰러나면 다음 조 대가 오지 않겠는가? 중국도 어느 왕조의 멸망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공산당이 없다면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동쪽에 우뚝 서 있을 것이다. 무신론의 질곡 없다면, 하늘을 우러러 받들고 신을 믿는 중국 인민은 반드시 찬란한 중화 신전 문명을 부흥시킬 것이다. 福


해답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때처럼 진상을 듣고 반박하지 않았지만, 시종 ‘삼퇴’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가 여전히 마음의 매듭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때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삼퇴’를 할지 말지는 그의 개인적인 선택이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었다.

왕시가 떠날 때, 한쪽 발을 문밖으로 내디디고 머리를 돌려 아내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사실 저에게 말한 이런 것들을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당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들먹거리며 떠나갔다. 그때 우리는 기분이 언짢았다.

다음 일요일 아침, 이웃집 가게 주인이 “아저씨, 이리 좀 와봐요.”라고 불렀다. 나는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그가 “왕시가 최근에 당신 집에 식사하러 왔었나요?”라고 해서 내가 “안

왔어요.”라고 하자 그는 또 물었다. “머칠 됐나요?” “오늘은 딱 일주일입니다. 왜 그래요?” 가게 사장이 말했다. “그가 죽었어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어떻게 죽었나요?” “지난 일요일 밤 9시가 넘어서 친구 집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마작했대요. 집으로 돌아갈 때, 전동 삼륜차를 몰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 치여 머리가 떨어져 죽사했대요.”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정말 괴로웠다. 멀쩡하던 사람이 이렇게 사라지다니!

이 두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단지 며칠 사이 일이다. 탈퇴하고 안 하고는 일념의 차이지만 삶과 죽음의 차이다. 대법제자가 목숨을 걸고 진상을 말하는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고 평안하기를 바란다. 



삼퇴하면 평안을 지킵니다

2023년 8월 7일까지 해외 탈당 사이트에 ‘삼퇴’(중공의 3대 조직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를 성명한 인원수는 4.17억 명을 넘어섰다. 인터넷 봉쇄를 돌파하고 ‘삼퇴’ 사이트(<https://santui.tuidang.org>)에 접속해 진심으로 탈퇴하면 실명, 가명, 애명으로 다 가능하다.




“지금의 난세 속에서 그(리 선생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되도록 설명함과 아울러 미래로 가는 길을 제시한 것이 결국은 인류에게 희망을 준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독교 신자인 폴리는 리 선생의 글에서 밝힌 우주의 법칙, 예를 들면 “생명은 잘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갚아야 한다.”에 매우 동의한다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만사 만물에 천지의 법칙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사상과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우리의 공덕, 과실, 업력은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갈지 지옥으로 갈지를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폴리는 리 선생의 글을 통해 인간에게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아름답고 희망찬 메시지”

도미니크 사비니(Domenic Savini)는 미국 공인회계사이자 대학교수이다. 그는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보고 리 선생이 미덕을 추구하라고 권유했고 선행을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인인 그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줬다며, “아름답고” “희망찬”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사비니는 “비천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당신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언젠가 당신이 신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인지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사비니는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부흥을 다시 복돋아 주고 사람들을 신과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도움을 준 파룬궁에 감사라, 파룬궁이 가져다준 희망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전했다. [(자료 출처: 따지웬(大纪元)) 

세 차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다

[중국 투고] 나의 남편은 정의를 위한 일을 했다. 비록 이루지 못했지만, 그 정의를 위한 행동의 덕분에 세 차례나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첫 번째 사고, 그는 차를 몰고 랴오닝(辽宁)으로 갔고 차 안에는 원장, 원장 부인, 사무원 한 명이 타고 있었다. 선양(沈阳)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갑자기 승용차가 대형 화물차의 밑으로 들어갔다. 승용차의 앞 유리가 산산이 조각났고 차체까지 변형되었다. 그러나 차 안에 있던 네 사람은 그저 놀랐을 뿐 아무 일도 없었다. 남편은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그 뒤에 앉아 있던 원장 부인이 차가 부딪치는 관성과 함께 남편의 허리를 발로 걷어찼고 뜻밖에도 남편의 허리디스크가 이렇게 나왔다. 정말 기적이었다!

두 번째 사고, 남편이 길을 걷고 있는데 승용차 한 대가 곧장 그에게 달려왔다. 피할 겨를도 없이 승용차가 단숨에 그를 들이받았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람이 부딪히면 바닥에 쓰러

졌을 텐데, 그는 예사롭지 않게 차 지붕판에 얹드려 있었다.

세 번째 사고, 남편은 버스를 몰고 지린(吉林)으로 향했다. 도중에 막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버스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고 차체가 빠르게 아래로 돌진하여 조수석에 있던 사람도 놀라서 멍해졌다. 이때 남편은 핸들을 단단히 잡았고, 잠시 후 차 속도가 서서히 안정되면서 아무런 위험도 없었다.

남편이 세 번이나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그가 매우 정의로운 일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 2000년 파룬궁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 한 파룬궁 수련생이 구치소에서 외부 수련생에게 자라한 부를 전하며 고소 및 소송을 도와달라고 했다. 자료는 내가 가져왔는데 남편이 “당신이 가지 말고, 수련생이 아닌 내가 가서 하는 게 더 설득력 있어.”라고 했다. 그는 100여 위안을 들여 변호사를 찾아가 고소장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에서 파룬궁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비록 고소장을 쓴 것은 헛되이 되었지만, 남편이 대담히 파룬궁 수련생의 억울함을 씻어주려고 했기에 큰 복을 받아 그 후 몇 차례 교통사고에서 모두 무사히 넘을 수 있었다. 

를 염하면 신불께서 당신의 행복과 평안을 지켜줍니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연거푸 고맙다고 했다. 내가 “저에게 고마워하지 마시고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라고 말하자 그는 즉시 말했다. “리 대사님 감사합니다!”

이틀 후 아침에 한창 고객을 맞고 있는데, 류 씨가 온몸에 흙이 잔뜩 묻은 채로 왼손에는 부서진 헬멧을 들고 부리나케 뛰어 들어왔다. 그는 “사장님, 제게 주신 호신부가 아니라면 ‘파룬파하오, 찰찬런하오’를 진심으로 염하고 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죽었을 것입니다!”라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어 그는 그날 아침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말했다. 아침에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했고, 공사장 현관 입구 모퉁이에 이르렀는데, 모래와 자갈을 가득 실은 트럭이 안에서 달려 나와 그와 맞부딪혔다. 당시 그는 마음속으로 “리 대사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친 후 의식을 잃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주변은 사람들이 가득 둘러 있었고 오토바이는 5, 6미터 떨어져 있었다. 구경꾼 중 누군가가 그에게 당시 그가 부딪혀 2미터가 넘는 높이로 날았다가 심하게 땅에 내동댕이쳤다고 했다. 모두 그가 틀림없이 죽었을 거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깨어나 천

천히 일어나 온몸을 위아래로 살피보았지만, 어디에도 부서지지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고, 출혈도 없었다. 그는 즉시 알았다. “리 대사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가 헬멧을 만져보니 부서졌고, 멀리 있는 오토바이를 보니 크고 작은 전등이 모두 부서졌다. 그는 오토바이를 일으켜서 올라타고 발로 힘있게 눌렀는데 뜻밖에 시동이 걸렸다. 그리고 바로 우리 가게에 와서 일의 경과를 이야기했다.

그가 말한 상황을 듣고 있던 현장의 모든 사람이 그가 정말 다행이라고 위안을 느꼈고, 파룬궁이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다.

고집부리며 탈퇴하지 않다가 목숨을 잃다

그동안 채소 시장에서 짐꾼으로 일하던 왕시(王喜)는 우리 가게에 자주 와서 식사했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50세 좌우인 왕시는 키도 180cm이고 사람도 잘생기고 말주변이 좋다.

어느 일요일 아침, 왕시가 가게에 와서 밥을 먹었을 때, 우리 부부는 또 차분하게 그에게 진상을 말했고, 그가 듣고 가끔 질문해도 우리는 모두 하나씩

실화: 탈퇴하면 살고 탈퇴하지 않으면 위험



[중국 투고] 5년 전 우리 부부는 아침 식당을 꾸렸는데, 대부분 고객은 학생, 인근 주민, 건설 현장 및 채소 시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매일 아침 식사 절정이 지나고 손님이 많지 않을 때 우리 부부는 이 시간에 진상을 알린다.

진상을 분명히 알자 무사했다

어느 날 아침, 50세쯤 되는 류(刘)씨 성을 가진 농민공이 우리 식당에 와서 밥을 먹었다. 그는 비교적 늦게 도착했고 고객이 적을 때라 나는 그에게 진상을 말했다. “파룬궁은 불법(佛法)이고, 사람들에게 진선인(真·善·忍)의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공을 하늘이 처벌할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하며 ‘삼퇴’(중공의 3대 조직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하여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는 분명히 알아듣고 ‘삼퇴’했다. 떠날 때 그는 내 손을 잡으며 “사장님, 오늘 아침에 제게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대법 진상 호신부(护身符)를 주면서 “항상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이웃의 자궁암이 완쾌되다



를 찾아와 공법을 배우려 한다고 하자 나는 알려줬다. “대법은 엄숙한 수련이지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대법을 믿으려면, 자신의 병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전법륜(转法轮)’을 잘 보세요. 법리(法理)를 분명히 알고

[중국 투고] L 씨는 나와 벽을 사이에 둔 이웃이다. 2002년 4월 24일 밤, 공안 경찰이 우리 집에 불법으로 집을 수색하려고 할 때, 나는 파룬따파 서적을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다가와서 “언니, 책을 우리 집에 보관해요.”라고 했다. 이렇게 하여 착한 그녀가 대법 책을 지켰다.

L 씨는 은행에서 일하는데 마작을 즐겼다. 때로는 밤새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장기간 이러다 보니 몸이 망가졌다. 이후 여러 병원에서 검사 결과 말기 자궁암 진단을 받았다. 그 해 그녀는 마흔이 채 되지 않았다.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그녀를 보러 왔다. 그녀의 큰고모가 권유했다. “옆집에 가서 파룬궁을 배워보렴.” 그녀가 나

진정한 연공인(炼功人)이 되면 몸이 정화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언니, 알겠어요. 이 병은 어차피 고칠 수 없고 저는 죽을 사람이니 안심하고 당신과 수련하겠습니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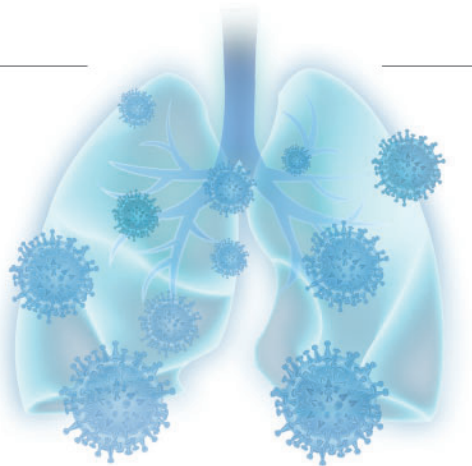
우리는 매일 시간을 내서 함께 ‘전법륜’을 공부했다. 머지않아 그녀는 정신이 좋아지고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연공을 시작하자 몸이 나날이 좋아졌고 그녀의 가족들도 매우 기뻐했다. 얼마 후 그녀는 출근했다.

감사할 줄 아는 L 씨는 사람을 만나면 파룬따파가 자신을 구해줬다고 했다. 그녀가 겪은 일은 우리 마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L 씨가 대법 책을 보호한 덕분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박해 전, 파룬궁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신기한 효과를 중국에서는 거의 집집이 알고 있었습니다. 1998년 중국 국가체육총국이 파룬궁 수련생 1만 2,553명의 건강 상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질병완치 및 기본 회복률은 77.5%, 호전율은 20.4%로,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총유효율이 97.9%에 달했습니다.

폐가 하얗게 되어 죽어가던 둘째 남동생 기적같이 살아나다



[중국 투고] 둘째 남동생은 당뇨병을 앓고 있어 매일 인슐린을 맞는다. 2012년, 그는 혈소판 감소증에 걸려 피가 멎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 그 후 또 심장병에 걸려 지치대를 넣었고, 또 신장병 요독 증도 있어 매일 투석해야 했다.

2022년 말, 당국의 갑작스러운 봉쇄 해제 이후 코로나19가 쓰나미처럼 터지면서 각 병원, 진료소마다 환자가 넘쳐나고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다. 모면하지 못한 둘째 남동생도 폐 질환으로 호흡 곤란, 숨이 막히고, 기침뿐만 아니라 가래에 피가 섞인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선달 초엿새날, 둘째 남동생이 지역 병원에 갔는데, 문에 들어서자마자 의사는 “나가세요! 나가요!”라고 호통쳤다. 둘째 남동생이 “의사 선생님, 약을 좀 처방해 주세요!”라고 간청했으나 의사는 연거푸 말했다. “약이 없어요! 가세요! 나가세요!” 둘째 남동생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병원에 갔다. 한 의사는 둘째 남동생에게 “일단 링거를 맞고 증상을 완화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는 없으니 큰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링거 한 병을 다 맞은 후, 둘째 남동생이 설사하기 시작하면서 병세가 더 심해졌다.

당시는 병원마다 병상도 약도 없이 환자들로 꽉 차있었다. 둘째 남동생이 창주 병원에 갔는데, 올케 오빠와 조카, 외조카가 모두 이 병원에서 일하기에 간담과에서 겨우 병상을 찾았지만, 나흘 동안 의사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약이 없다고 했다.

다음날 소식을 들었다. 셋째 올케가 전화로 둘째 남동생의 폐가 80% 하얗다면서 조카와 조카딸이 전화했을 때 울면서 그녀더러 뒷일을 준비하고 관을 사 오라고 했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남편과 오빠, 셋째 남동생과 함께 차

꿈만 꾸면 병이 나자 나는 할머니를 그리워하던 데로부터 꿈에 볼까 봐 두려워졌다.

나는 이것이 모두 맹세로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때 겁 없이 한 말을 후회했다. 할아버지의 유골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부모님도 계시는데 할머니 무덤이 어디에 있는 내가 무슨 방법으로 할머니를 외롭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악몽은 줄곧 십여 년 동안 나를 괴롭혔다.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는가? 누가 나더러 제멋대로 맹세하라고 했던가?

1998년에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에야 이런 꿈을 꾸지 않았다. 수련 후 심장병, 녹내장, 요추경추골증식, 관절염, 방광염, 부인병, 위염, 치질 및 신경쇠약과 같은 난치병이 사라졌다. 파룬따파는 사람을 구하는 정법(正法)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나의 경험도 증명하다시피 신불도 저승과 영체도 존재하기에 사람은 함부로 맹세할 수 없고 독한 맹세를 하면 더욱 위험하다.

사람들은 중공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 가입할 때 오른손을 들고 혈기 앞에서 평생 공산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분투할 것을 맹세했다. 헌신이란 생명

을 바치는 것이며 이것은 독한 맹세를 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은 그것의 한 개 분자가 된 것으로 그것의 소관이 된다.

중공은 여러 정치 운동에서 8천만 명의 중국인을 비정상적으로 죽였고 지난 20년 동안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생을 잔혹하게 박해했다. 선과 악에 응보가 따른다는 하늘의 이치이다. 하늘은 반드시 그것과 총결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중공의 조직에서 탈퇴 성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부장품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탈당 사이트(<https://santui.tuidang.org>)에 삼퇴(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출) 성명을 내는 것이 독한 맹세를 제거하고 평안을 얻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만약 자신이 탈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면 ‘삼퇴’를 권유하는 파룬궁 수련생을 만났을 때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삼퇴’는 중공 조직에 가서 탈퇴하는 것이 아니며, 나이가 넘었기에 자동으로 탈퇴한 거라고 여기는 것도 중공이 정해 놓은 규칙이므로 ‘삼퇴’로 인정할 수 없음을 모두에게 일깨워드립니다.



나의 체험: 사람은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

글/ 설연[雪蓮, 신장(新疆)]

나는 형제자매 중 맏이로 1955년에 태어났다. 내가 태어난 지 8개월 때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줄곧 어머니를 도와 다섯 명의 아이를 키웠다. 우리와 할머니 사이는 매우 좋았다.

1958년 아버지가 우파로 몰려 농촌으로 내려가게 되자 할아버지는 노여움에 겨워 홀로 고향으로 가셨고 나중에 대기근 때 질병과 기아로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시신을 찾지 못했다. 아빠가 우파라서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동생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했다.

1968년 아버지는 조반파(造反派)들에 죽도로 투쟁당했고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기에 나와 1살 반 어린 여동생이 집안의 주요 노동력이 되었다. 그해 가을, 멀리 서북 농장에 계신 삼촌이 우리 집에 오셔서 할머니, 셋째 여동생, 넷째 남동생을 데려갔다. 나와 큰 여동생은 부모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불우한 세월이 우리 집은 마침내

대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듬해 6월, 할머니가 뇌출혈로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 전보를 받고 우리는 비통하기 그지 없었다. 아버지는 조반파의 감시로 인해 휴가를 내지 못해 장례식에 갈 수 없었다.

1971년 겨울, 셋째 여동생과 넷째 남동생을 데리러 갔을 때 처음으로 성묘하러 할머니 산소를 찾았다. 아러타이(阿勒泰)의 초겨울은 건조하고 눈이 내리지 않는다. 열일곱 살의 나는 할머니의 무덤에 엎드려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맨손으로 주변의 모래와 돌을 한 줍씩 할머니의 무덤에 올리며 무릎을 꿇고 맹세했다. 할머니, 앞으로 방법만 있다면 절대 할머니가 외롭게 여기에 있지 않게 할 겁니다!

나는 일한 지 1년도 안 되어 끊임없이 할머니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한번은 할머니의 바지가 찢어진 꿈을 꿔는데, 내가 바지 크기를 재었더니 조화 집에서 파는 바지 길이와 같았다! 내가 할머니

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둘째 남동생이 호흡곤란으로 머리와 팔, 손이 크게 부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누울 수 없었는데 누우면 기침하면서 피가 섞인 가래를 엄청나게 뱉고 있었다.

둘째 남동생은 우리를 보자 울면서 “누나, 시달리는 게 너무 괴로워.”라고 했다. 나는 “겁먹지 마. 평소 알려준 9자진언 기억나? 빨리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해, 대법만이 너의 목숨을 구할 수 있어. 나와 함께 염하자. 성심성의껏 읽으면 기적이 나타날 거야. 내가 한 마디 염하면 너도 따라서 한 마디 염해.”라고 했다. 동생이 “소리 내서 못하겠어.”라고 해서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말을 할 수 있으니 꼭 할 수 있어.”라고 했다.

남동생은 9자진언을 염하기 시작했고, 나는 올케, 조카, 조카딸도 함께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진심어린 존경으로 염할 것을 당부했다. 올케가 호신부(護身符)가 있다고 묻자 나는 갖고 있던 진상 호신부를 그녀에게 건네줬다. 그녀는 재빨리 둘째 남동생에게 걸어주고, 계속해서 대법의 9자진언을 염했다.

잠깐 사이에 둘째 남동생이 누울 수 있게 됐고 모두 가슴 졸이던 긴장을 풀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두 번째로 병원에

갈 때 진상 호신부를 좀 가지고 갔었는데 올케가 받고서 조카와 조카딸에게 하나씩 주었다. 약물을 쓰지 않고도 둘째 남동생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었다. 의사는 둘째 남동생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대단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당신처럼 폐가 하얗게 변한 사람은 모두 죽었고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살아남은 것은 기적입니다!”라고 했다. 셋째 남동생은 관을 물렸고, 둘째 남동생은 곧 퇴원했다.

또 신기한 일이 있는데, 당시 병원 복도와 병동 곳곳에 온통 환자였고,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올케와 조카들은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가까이서 환자와 접촉했는데도 감염되지 않았다.

이제 둘째 남동생은 완전히 나았고, 그는 매일 ‘보도(普度)’, ‘제세(濟世)’ 등 대법 음악과 명혜망의 ‘사부님 은혜 회상’, ‘신전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 대법 사부님께서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와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를 발표하신 후 나는 그에게 보내주었고, 올케가 매일 그에게 읽어주었다. 대법은 둘째 남동생을 구했고, 사부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셨다. 우리 가족 모두는 대법의 비범함과 탁월함을 목격하고, 크나큰 부처님의 은혜를 느꼈다!

암세포가 없어져 깜짝 놀란 의사들



내 둘째 형과 둘째 형수는 수천만 위안의 자산을 가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총명하고 유능한 둘째 형수는 회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있었다. 회사의 업무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밤낮으로 고생하다 보니 둘째 형수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다.

병원은 위암 말기 진단을 내렸다

지난봄, 둘째 형수는 하혈하기 시작했고 음식을 먹으면 위가 불편했다. 가족이 지역 병원에 데려가 사진을 찍고 검사했는데, 말기 위암으로 이미 간까지 퍼진 것으로 나왔다. 가족들은 둘째 형수가 충격을 견디지 못할까 봐 심한 위궤양으로 작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만 했다. 하지만 의사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며 보존적 치료를 권유했다.

둘째 형수의 아들은 차마 그럴 수가 없어 성급 병원의 전문가를 찾아 어머니에게 병원을 옮기려고 했다. 둘째 형수가 병원을 옮기기 전, 나와 남편은 그

녀를 보러 지역 병원으로 달려갔다. 조카는 “숙모, 의사가 우리 엄마가 몇 달 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라고 하자 나는 그를 위로했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모두 함께 어머니를 위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염하면 꼭 기적이 나타날 거야!”

전염병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간병인을 제외한 가족 누구도 둘째 형수를 볼 수 없어 전화로 소통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형수는 일찍 파룬궁의 책을 읽었고 대법의 진상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나는 그녀에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염하라고 당부했다. 둘째 형수는 “명심할게요. 저는 마음속으로 대법 사부님께 보호해 달라고 빌고 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저를 위해 사부님께 간청해주세요.”라고 했다.

이날 오후 둘째 형과 그의 아들, 며느리, 사위는 둘째 형수와 함께 성급 병원



▲ 유럽의회 및 스위스 연방의원 그랭 선생



▲ 스위스 연방의원 포르세 여사



▲ 스위스 제네바주 의원 뵅거 선생

장기를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반(反) 인류 범죄

유럽의회 의원이자 스위스 연방의회 국민원 의원인 장 피에르 그랭(Jean-Pierre Grin)은 서한에서 “저는 2022년 5월 5일 중국에서 계속되는 생체 장기적출 혐의에 대한 유럽 의회의 결의안을 지지합니다. 저는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에 제3국과의 개발 관계에서 생체 장기적출 문제를 제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랭은 서한에서 ‘중공은 장기 구매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요구 사항을 완벽히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체 장기적출’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제인권기구의 독립적인 감시를 허용해 줄 것을 중국에 호소합니다.”라고 밝혔다.

스위스 연방의회 국민원 의원 레오노르 포르세(Léonore Porchet)는 서한에서 “중공이 파룬궁 박해의 죄악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끔찍한 범죄입니다. 정부가 장기를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동의한 것은 반 인류 범죄입니다.”라고 말했다. 중국도 언젠가는 스위스처럼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될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리라고 밝혔다.

‘세계 인권 선언’은 세계 각지에 적용된다

스위스 제네바 사회당 당수 토마스 뵅거(Thomas Wenger) 제네바주 의원은 서한에서 “국제도시인 인권, 평화, 대화의 도시 제네바에서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삶과 자유를 보장하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썼다.

“오늘 2023년 7월 20일, 파룬궁 수련자들이 여전히 수감되고 고문당하고 형을 선고받고 있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이 재확인한 원칙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스위스 의원들 파룬궁 성원, 세계는 진선인(真善忍)이 매우 필요하다



▲ 스위스 연방의원
리엘 여사

[명혜망 보도] 올해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평화적으로 반(反) 박해를 진행한 지 24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위스의 정계인사 21명은 파룬궁을 성원하는 서한을 보내 진선인의 가치를 찬양하고 중국공산당의 인권 침해와 생체 장기 적출 범죄를 규탄했다.

스위스 연방의회 국민원 의원인 로렌스 펠만 리엘(Laurence Fehlmann Rielle) 여사는 서한에서 파룬궁은 진선인의 가치에 기반한 일종의 수련 방법이며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유엔, 유럽의회 등은 파룬궁에 대해 “이런 놀랍고 이해하기 어려운 박해”라며 “파룬궁 수련생들이 받은 비인간적인 대우 중 하나가 장기를 산 채로 적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리엘 의원은 “진선인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것이 범죄인가요? 반대로, 우리 세계는 이러한 가치관을 매우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인권 침해를 계속 규탄해야 하며, 저는 스위스 당국이 이러한 탄압을 종식하고 신앙과 사상의 자유가 존중되도록 더욱 확고히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들의 용기와 확고한 결심을 칭찬한다고 전했다.

을 찾았고 전문의의 진단 결과는 지역 병원과 같았다. 위암 말기고 암세포가 이미 간으로 퍼졌다고 했다. 성급 병원 전문가들도 수술할 필요가 없다며 보존적 치료를 권유했다. 그러나 둘째 형수가 음식을 먹으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기에 조카가 전문가에게 부탁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어머니는 우리 집 기둥입니다!” 사흘 뒤 둘째 형수는 수술했고 위를 3분의 2 정도 잘라냈다. 둘째 형이 전화로 수술 과정이 매우 순조롭다고 알려줬다.


병원 재검사 결과 암세포가 사라져

둘째 형수가 퇴원한 후 나는 남편과 함께 그녀를 보러 갔고 그녀는 우리에게 수술 과정의 신기한 경험을 들려주었다. 둘째 형수는 “병원에서 자고 먹는 것 외에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를 끊임없이 외웠고 대법 사부님께 살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수술 전에 잠든 듯 말듯할 때, 아주 거대한 사람이 저의 배에서 아주 큰 물건을 옮겨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당시 몸이 한결 가벼웠고 너무 편안한 느낌이 들자 대법 사부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매우 기뻐다. “둘째 형수님, 정말 행운이세요. 사부님께서 형수님 병을 제거해 주셨어요! 사부님께서 진심

으로 9자진언을 염하시는 것을 보시고 정말 구해주셨어요. 어떤 병에 걸렸든 그 병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둘째 형수는 즉각 “사부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처가 다 나으면 당신들을 따라 파룬궁을 잘 연마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얼마 후 둘째 형수는 성급 병원에 가서 재검사받았고, 그 결과는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정말 놀랍습니다. 상처가 잘 아물었을 뿐 아니라 간으로 퍼진 암세포는 물론 모든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두 달 후, 외국에서 돌아온 조카딸은 믿을 수 없어 다시 필름을 들고 상해로 가서 4개의 큰 병원의 전문가들을 불러 검진했는데 결과는 똑같았다. “상처가 이미 잘 회복되었고 암세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둘째 형수는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생명을 살 수 없으니 사람은 반드시 명예와 이익을 담담히 보아야 합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한요. 당신 부부는 20년 넘게 연공을 했고, 주사와 약을 먹지도 않았고, 몸은 여전히 건강하니, 저도 남은 생을 함께 수련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둘째 형수는 이미 ‘전법륜’을 읽기 시작했으며 주변 친구들에게도 “대법 사부님이 저를 구해주셨으니 파룬따파가 좋다고 저는 말합니다!”라고 말한다. 

스타 헤어디자이너의 독특하고 기이한 경험

글/ Daksha Devnani
편집 번역: 탕원수(唐云舒)



▲ 스타 헤어디자이너 가브리엘 조르지오.

미국 할리우드와 인도 발리우드의 스타 헤어디자이너 가브리엘 조르지오(Gabriel Georgiou)는 사업이 크게 성공했을 때 한 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 깊은 체험은 나중에 그가 진정한 미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삶의 목표를 찾도록 이끌었다.

젊었을 때 인생을 탐구

조르지오는 현재 53세로 오스트레일리아의 희랍정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리스계 후손이다. 조르지오는 소년 시절부터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다. ‘왜 사람이 병에 걸리고 왜 죽으며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도교와 불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

서적을 읽었다.

어른이 되어 독립한 후, 조르지오는 그리스의 아토스산 수도원을 방문하여 4박 4일 동안 머물며 수도사들과 매우 심도 있는 연구 토론을 했다. “그 경험은 아름답지만, 그것은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니며, 제가 찾는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리우드에서 미망에 빠져 죽음을 체험

멜버른 빅토리아대학에서 패션·미용·헤어를 전공한 조르지오는 1980년대 헤어디자이너로 시작해 미국 할리우드에 진출했다. 1990년대 후반, 조르지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10대 헤어스타일리스트 중 한 명이 되었고, 그의 경력



미국 워싱턴D.C



캐나다 몬트리올



일본 도쿄

반(反)박해 24주년

올해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평화적으로 박해를 반대한지 24주년이 된다. 전 세계 각국의 파룬궁 수련생들은 집회와 퍼레이드를 개최하여 진상을 전파하고, 중국공산당이 현재까지 24년간 지속해온 파룬궁 박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각국 정치인과 대중에게 성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



프랑스 파리



타이완 타이난



은 크게 성공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호흡을 맞춘 할리우드 톱스타는 키아누 리브스(Keanu Reeves), 드류 배리모어(Drew Barrymore), 케이트 블란쳇(Cate Blanchett), 제시카 비엘(Jessica Biel) 등 셀 수 없이 많다. 그는 인도 발리우드에서도 성공했고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배우와 작업했다. 골든글로브와 미국배우조합상, 칸영화제 행사 기간 동안 레드카펫을 밟는 스타들의 헤어스타일을 디자인해주었다.

당시 조르지오는 부유하고 성공적이며 사교계의 단골손님이었고 큰 파티에 자주 참석했지만, 매우 공허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즐겁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자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것들뿐이었습니다. 저는 영혼이 시들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조르지오는 점점 물질적인 생활에 빠져들고 파티에서 마약을 흡입하기 시작했다. 2002년, 그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10일간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했을 때 갑자기 마약을 중단했고, 그 열흘 동안 마약은 전혀 묻히지 않았다. 하지만 일이 반쯤 진행됐을 때 그는 너무 힘들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모델의 헤어스타일도 할 수 없었다.

조르지오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죽음의 체험을 떠올렸다. 그는 말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내가 몸에서 떠난 것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신이 맑고 의식은 또렷했지만 두렵지 않았고 매우 평온하고 자유로웠죠. 저는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에서 떠났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광경은 매우 이상했는데 저는 밝은 빛을 보았고, 그 빛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저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 같은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영화에서 들었던 것처럼 여러 차원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네가 길을 잃었으니 우리가 너를 데리러 왔다’라고 했어요.”

“일생을 돌이켜보며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고, 제가 세상에 온 이유와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지만,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됐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 생각(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생각)을 한 뒤 곧바로 몸속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눈을 뜨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조르지오는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온 후 마약을 완전히 끊었다. 그는 겸손

한 마음가짐으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를 갈망했다. 그는 항상 “제가 준비되면 스승님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 한마디를 믿었고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고 여겼다.

호주로 돌아가 휴양할 때 파룬궁을 만나다

서른두 살 때, 조르지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호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집에 돌아온 후 첫 4개월 동안 그는 은둔자 같은 생활을 했다. 그는 “밥 먹고 자는 것 말고도 책을 읽

는다는 게 어찌 보면 일종의 재활치료 같았어요.”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르지오는 할리우드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브리즈번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서 텔레비전 광고를 찍는 일을 찾았다. 그러던 중 한 여성 분장 전문가를 만났는데, 그가 살아 온 배경과 비슷한 그녀는 대형 록 밴드를 따라 세계 곳곳을 다녔다고 했다. 그녀는 자기가 치료법이 없는 희소 질환인 클론병을 앓았는데 파룬궁을 수련한 후 건강을 회복했다고 알려줬다.



▲ 파룬궁 활동에 참가해 파룬궁의 제5장 공법을 연마하고 있는 조르지오.



▲ 할리우드 톱스타 프리앙카 초프라의 헤어스타일을 기획하고 있는 조르지오.

조르지오는 그 다음 주에 공원의 연공장에 가서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을 배웠다.

그는 회상했다. “이 공법은 에너지가 정말 강했어요. 제2장 공법을 했을 때 반응이 너무 강해서 기절할 뻔했는데 하늘이 빙빙 돌고 있는 것 같고 토하고 싶었고,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건 제 몸에서 안 좋은 게 나가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몇 분 후 괜찮아졌고 일어나서 동작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정말 강한 게 있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르지오는 파룬궁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것이 21년 전의 일이다.

“파룬궁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조르지오는 기관지염, 척추측만증, 우울증이 파룬궁 수련 후 모두 사라졌고 어려서부터 그를 괴롭혔던

삶의 의문들이 풀리면서 자신이 평화롭고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했다.

연예계에 복귀하여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주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은 후, 조르지오는 더 큰 범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당시 저는 예전처럼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이제 그 업종으로 돌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조르지오는 영화 및 패션 업계의 실력자들과 함께 일했다.

파룬궁 진선인(眞·善·忍)의 사상적 지도를 받은 후, 조르지오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인내심과 자비심으로 임할 수 있었고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했다. 주위 사람들은 그의 미소가 항상 열정적이라고 칭찬했다.

그는 “더는 어떤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더 포용적이고, 더 자비롭고 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주변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어도 저는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선심과 자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영문 따지웬)